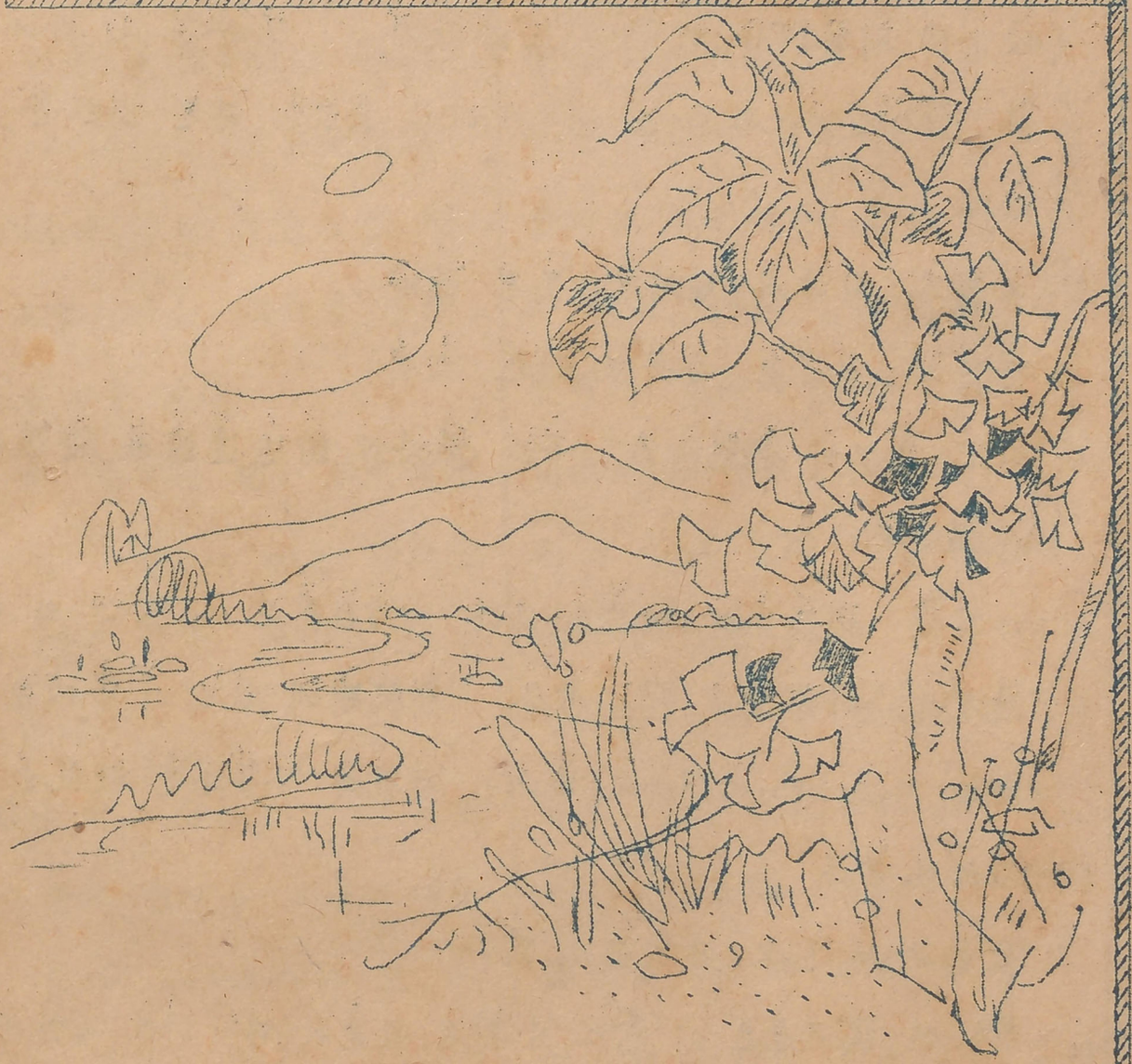
蔚江

第四號



蔚山高等學校

卷頭言

校長

開校한지 얼마되지 않는 艱難多端한 사이에서 온갖 苦路를 무릅쓰고 諸君들이 손수 이 "蒼江"을 創刊하였음에 먼저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나는 그동안 學校일로 서울에서 내려가 도라왔다 도라온 첫 귀에 이 "蒼江"의 푸른 물결이 구비쳐 흐르는 힘찬 소리를 들었다

기쁨과 희망에 넘치는 푸른 물결
영원에 이르는 유유도도한 흐름

이는 蒼江의 本質이요 우리 學校의 前途遠遠한 發展의 象徵일것이다

그러나 諸君들의 責任은 크다 諸君들은 이 "蒼江"의 創造者요 이 學校의 開拓者다 創設期에 있는 이 學校를 健全한 土台위에 내세우고 빛나는 傳統과 아름다운 校風을 創造해야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創造에 諸君들은 이 "蒼江"의 맑은 웃물의 샘이되고 끊임없이 흘러 아랫물도 맑게하라 끝으로 이 "蒼江"의 發刊이 곧 諸君들 自身의 發展이고 이 學校의 發展으로 알며 祝福하는 바이다

幸福한 生活이란?

敎師 K生

여러 學生을 相対하고 있는 나는 恒常 "幸福"이란 무엇이냐고 무름을 받는다. 特히 只今의 社会에서 나쁜것만 感受하기 쉬운 多情多感의 學徒는 흔히 이 幸福을 物質的要素 即 金錢의 많고 적음으로 判定하고만 있는 傾向을 가지고 있는것을 본다.

어느날 着実한 몇몇 學生에게서 또한 "幸福"에 対한 質問을 나의 論한 바를 断片으로 써 볼가한다.

幸福이 되고 싶다!! 이 말만큼 사람의 입에서 더들어대는 것은 없다. 그러나 또 이것만큼 眞実로 理解되고 있지 않은것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萬사람이 幸福을 원하고 찾고 있으나 大概 사람은 幸福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원하고 찾고 있다. 우리 凡人들이 幸福을 모색하고 열망하고 있는것은 恰似 처음 가는 길을 急하게 目的으로 줄다름치고 있는것과 같이 위태하기 짝이 없다. 만약 발거름을 들리게 놓았다면 가면 갈수록 目的地와 멀어질것이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결경 끈궁에 빠지고 말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目的인 幸福으로 가는 길을 바로 発見하고 所在를 確信못한진데 길 걷는 사람의 運命과 어디가 다를까.

여기서 目的地와 方向을 안다고 한들 어느길을 択하여야 가장 짧은 行路가 되며 順路

가 되는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正道를 發見하고 하로 하로 지낸다면 改善을 얻것이다 與反対로 틀린길을 가고 있다면 하로하로 지낼수록 迷宮에 빠지고 彷徨와 錯誤로서 종점에 가게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旅行의 길과 幸福으로 가는 길을 비유하고 있으나 大端히 틀리는것을 한 한가지만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即 旅行하는 사람은 道路위를 걷고 또 中途에 宿所도 있고 間或 길을 틀리게 잡았을때면 先住民에게 길을 물어 바른 길을 배울수도 있다 또한 옳은 道路는 많은 旅行者가 가고오고 한 안전한 길인것이다 그러나 幸福으로 가는 길은 이와 正反対로 사람이 많이 來往한 그길이 더 위태롭고 이길을 先住民에게 물을때 바로 가르쳐 주기는 커녕 那道로 誘惑하고만다 그러므로 幸福의 길로 가는 그길은 찾기는 大端히 어렵고 發見되었다하드래도 目的地까지 가기는 數多한 고생이 따른다

大体로 그 目的地는 어디에 있고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幸福으로 가는 길은 無數히 많은 것이나 그 중에 우선 "德性"이 곧 幸福이란것만 간단히 論하고자 한다 特히 오늘 學生의 無道한 亂行이 社会問題가 되고 있는 터이라 意義있는것이다 "德性"은 幸福이란것을 强調하고 싶다 德은 完全한 善이오 人生에 있어서 唯一한 不滅性을 갖인것이다 幸運에 눌렸다고 해서 고만하지 않고

不遷하다고 喪心하지 않는 精神의 偉大함이 곧 德이요 또한 德은 社交的이요 溫順하고 自由이고 確固하고 大膽한것이다 그리고 순수하고 神聖한 精神위에 놓여있다 喜怒哀樂에 精神이 動요되지 않고 恒常 判斷力을 갖이고 肉体的衝動이나 精神的衝動에 動요하는 일없이 着々 大膽한 일을 行爲하는것이다

우리가 善行惡行을 区別 지우는것은 行보다 그 일이 안니고 그 德性을 말하는것이다

捕虜로서 敵에게 부들려 가드래도 敵이 大將보다도 偉大한 人格者일수 있다 卽 正義心보다 肉体的苦痛을 겁낸다면 人間은 破滅인것이다

이와 같은 德性에 빛나는 善人의 마음을 볼때 優麗하고 壯大하고 따라서 그 사람에게 祝福을 느낄수 있고 讚美하지 않을수 없는 事實은 萬사람이 다 느끼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德은 불꽃과 같이 周圍 一切를 同化하여 타고만 있고 우리들의 行爲는 이 불꽃 속에서 愉快히 타고만 있다

이와 같이 德은 우리들 마음을 淨化시켜주고 따라서 社会의 등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德은 修養으로서 成立되고 實踐함으로서 成立된다

젊은 学徒들이여! 幸福을 願하거던 修養을 게을리하지말고 實踐에 옮겨라

万若 全世界가 一個人 나에게 対하여 욕설을 하드래도 周圍의 모든것이 나를 強制로 压

迫하드래도 超然하게 精神을 安靜하고 올바른 判斷을 내려 德에 依한 運用을 잘 한다면 合理的美德 社会的美德의 好材料가 될것이다

오늘의 道義敎育의 必要性이 여기에 있고 이 길을 밟음으로해서 幸福은 우리 마음에 깃드리고 말것이다

善良한 "소크라테스"가 德에서 죽음을 불사해 그의 德性은 監獄을 昇華化시켰던것이 아닌가

德은 埋沒되는것이아니다

눈앞에 迷惑되는 富貴 名譽 好運은 偶然히 오는것이요 이것이 幸福이다 라는 觀念은 버리아야한다 그러나 德은 恒常 精勵하여야하며 이길이 幸福이라는것을 알지못한 平生을 두고 따르아야 되겠다

萬物과는 無關係인 이 德을 갖인 사람이 善人이요 참다운 幸福者다

浪漫的인

詩의 解釋

詩란 무엇이냐고? 푸른눈에 나를 쳐다보고 너는 말한다

詩란 무엇이냐고. 너조차 그렇게 물나니 詩란--네로다

<빈 칠>

詩란것은 무언지 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짝 드러나 앉인 사람이다.

詩는 牧童이 그愛人의 머리위에 꽃 花環을 얹어 주는것이다

詩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뜰앞에 핀 장미 꽃밭을 희나는 나비다.

再出發

오랫동안 우리들은 오직 배움의 機會를 가슴 깊이 안고 그 悲慘한 環境에서 허덕이었을때 또한 社会에서 버림받은 孤兒처럼 이거리 저거리를 헤매었을때, 그 가슴에 쓰라린 괴로움 더구나 認可되는 学校한 未生兒처럼 冷待와 조롱의 的이 되었을때 우리들은 얼마나 서러웠던가

그러나 이제 우리 学校도 當당히 文教部長官의 正式認可가 났으니 이 뒤에 기쁜 일이 어데 있겠는가 그로므로 이제는 우리들도 지나간 쓰라린 過去事를 一掃하고 同時에 앞으로 다져올 크다란 覺悟와 希望을 가지고 다시금 참다운 배움의 길로 猛進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단지 배우겠다는 생각만으로 目的을 達成할수 있을것인가 무엇보다도 精神武裝을 完全히 갖추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要컨데 남이 배우니까 나도 배워야하고 남이 노니 나도 놀아야 OK

2년 逝時來

하고 남에 뒤으니 나도 또한 따라야 OK 되겠다 하는 이러한 썩어빠진 精神을 아주 바리고 좀더 自發的인 存在가 되어야 할것이다 學友들이여! 오늘날 世界的으로 優秀한 文化가 發達된 저 先進国家를 보라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하여 豊富한 生活과 平和로운 生活을 가질수 있었는가

보다 또한 어떻게하여 世界的으로 優秀한 文化로 發達시킬수 있었으며 他国家마저 支配할수 있었던가?

이것은 오직 많이 알기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알것인가? 배움! 그렇다 배워서 아는것이다 그러나 無條件 배우겠다는 信念만으로서도 決코 안될것이다 배움에는 오직 努力과 目的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 努力과 目的은 또한 精神統一에 있는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나라는 왜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겨누지 못하고 이 悲慘한 環境속에서 더구나 同族相殺의 銃聲을 들

지않으면 안되었던가 ?
이것은 우리들 各自가 한번식 가슴에 손을 얹고 愼重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無知와 無能을 意味하는것이 아닐까
아는것이 힘이다
親愛하는 学友들이여 ! 우리는 배워야 한다

祖国의 運命을 開拓한 일꾼이 되고 훌륭한 文化를 創造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意志와 覺悟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確固不動한 目的아래 不撓不屈의 努力으로 배움의 길에 굳센 再出発을 盟誓하자

인 가

1년 金福德

8월이건만 아침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개는듯한 더위은 등을 적신다 도로 저편에는 자동차가 뽀얀 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다 이날따라 전기도 없어 선풍기조차 죽고 말았다
선내는 공기 한점 통하는 곳 없어 부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있었노라니 "제르컹 제르컹" 하고 신호 벨이 또 울린다
"에이 더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놈의 전화는 이렇게 자주 거야"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491st Kim Spiking Sir" 저편에서 "나는 x x이야 그런데 우리학교 인가 났대" "뭐야? 거짓말 안야"

나는 그말이 참말 정말인줄만 알았다 "아니야 학교에서 나에게 통지가 왔어"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한참만이야 전화가 끊인줄 알고 수화기를 놓았을땐 저절스럽기도 하였다
"정말일까 그 그럼 말았으라면 좀더 자세히 물어 볼걸"
이때 교장선생님의 자상하고 자부심 모습이 내눈에 떠올랐다
입학하고 아직 세번밖에 보지못한 교장선생님이였으나 믿음직하고 여간 인상이 였다
언젠가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인가는 어떻게 되였읍니까?" 고 물었을때 "인가는 국정발라 이번에 서울로 가

면 곧 받아들이니 안심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하시던 그때의 모습과 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그렇다 인가야 나갈지 공부나 열심들 하자" 고 숙덕이던 그 소리가 다시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것 같았다

인가 없는 서름이란 애비 없는 자식과도 같았다

언젠가 한번은 울산다리를 지나치다 어떤 학생이 침을 뱉으며 "인가도 없는 학교가 보무를 불려" 고 조롱함을 당했다 그때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그자리를 피해버렸다 어제지 그후로는 보자도 쓰기 싫었다 대로는 돈을 좀 쓰드래도 다른 학교로 갈까? (돈도 없지만) 야간부에나 다닐까? 온갖 생각이 다들었다

아 얼마나 그랬던가 //
얼마나 바랐던가 //

나는 두주먹을 불끈 쥐었다

"인가!"

이제 남 부럽지 않는 당당한 학교. 그렇다 공부하자 그리하여 우리학교를 빛내자" 때마침 하늘높이 우렁찬 소리와 함께 그기 뜨다

편지 K. B. D

옥아!

네 편지는 고맙다

서울! 동경의 서울은 아니면만 어젠지 나도 서울이 그리워지는것 같다

하도 부질없는 시산과 보람없는 공간에 시달려 나는 데카의 함정에 빠지려는듯 두렵기도 하다

옥아!

어제는 구름이 소꾸쳤다 오늘은 비가오고 내일은 또 부슬 바람이 불련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이말은 옛날의 진리가 아닐가?

나도 공간이란 주소와 시간이란 생명을 가졌다 그러나 역사를 의욕하는 참된은 아지지 못하는가 보다

오늘도 황금만능의 선풍은 그 꼬리를 감추지 않았다

옥아!

돈과 백아란 명영 공부나를 빼고 딸을 줄 데 여우는 또 무슨 궁리를 하려는지

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허수아비가 되고 마랐다

옥아! 내일은 또 부슬 바람이 불겠지

나는 배를 놓고 기다리련다

農村의 가을밤

2년 李根守

이따금 산골짝을 스쳐오는 바람은 제법 사늘하다 생각만하여도 치웃지웃하거니와 그 사정없이 내리쪼이던 삼복더위는 어느듯 자취를 감추었나보다

이날따라 밤하늘에 솟아오른 달이 유난히도 밝다 나는 벼안간 까닭없이 울렁이는 마음을 금치못해 좁다랗게 뻐여진 논두렁길을 걸어간다 바람이 설렁설렁 불어 고개숙인 벼이삭을 흔들어 준다

가을!

나는 거니든 발걸을 멈추고 가을의 호흡을 마음껏 마셔본다

밤은 말없이 깊어가고 四方은 무덤처럼 고요하다 다만 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반짝이고 中天을 넘어선 달은 銀빛을 뿜낸다

때때로 "찌르렁 찌- 찌르렁 찌-" 하는 귀뚜라미가 가을 밤의 흥을 돕는다 어쩌면 이 귀뚜라소리는 지난 날의 추억을 더듬어 주기도 한다

이렇듯이 지나간 그 어느날 밤이였다 오늘 밤처럼 유난히 달이 밝고 귀뚜라미도 울던 처량한 밤이였다 나는 누나와 같이 논두렁길을 거닐며 "누나 가을은 희망을 북도아 주는 계절이라지" 무렀드니 누나는 "아니야 가을은 사람의 서글픈 추억을 들추어내는 적반의 계절이란다" 그 말하고 묵묵히 거니기만 했다

나도 더 부럴 나위없이 따라거닐었다 한참동안 거닌후에 누나는 내 손목을 잡으면 말을 가라쳤다

"저 달이 빠지고 내일 해가 돋으면 나는 멀리 시집을 간단다" 하며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던 누나의 눈시울엔 눈물이 아롱진것이였다

나는 누나의 품안 뛰여들었다

누나는 나를 힘있게 껴안으며 "용부 잘해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몇번이나 다정스런 말씨로 타이르는것이였다

그때 그날밤도 저 달이 밝았고 저 귀뚜라미가 울었다

나는 이러한 가을밤이면 언제나 멀리 시집간 누나가 그리워 부질없이 논뚜렁길을 거닌다.

麥秋情

2년 金相愛

山川에 秀麗 기름진 들은
파-란 포장을 치면
코바르트 빛깔로 눈이 부신다

종다리 노래 하늘 가득히 부르고
뻐국이 노래 임바지는 農園이여!
땀냄새 흙냄새 거름냄새 그윽한 밭두렁에
내 가만히 거닐며
오랜 벗 여읜 설움에
눈물 소롯이 마음을 젖인다

여기는 보리타작 또 저기도
드리깨 바주서서 흥에 따리며
어디에서 들리오는 보내기 소리는
아주 옛날부터 첩첩이 쌓아온 伝說들을
신기한듯 읊어보구나
검고도 붉게 탄 農夫의 그얼굴엔
구슬땀 주르르 흐러나가도
건듯 부는 淸風에 느꺼러운 미소가 감돌다

하늘 닿인 저-기 山봉위에서
솜처럼 흰 보들한 구름이 솟아오르며
지난날 내 기구한 運命을 하나하나 설어 본다
그래도 구름은 소리 없이 흘러만 가구나
오오 내 오랜 날 두고 볼 農園이여!

진정 나는 農園을 사랑 했지어다
초호한 風情이 출렁이는 그 품속에 고도히 안겨
언제나 파아란 꿈을 아롱 색여보자

---

o

바다가 에서 1년 金福德

천지를 울려놓듯한 파도가 몰려왔다간
바위에 부디쳐서 하이얀 거품으로
사라진다
사라진 거품 도리키기도 전에 또
거센 파도 밀려와 내리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 바위
꿀꿀이 아무 말 없이
밀려오는 파도 내리쳐도
"아프다 괴롭다"는 말없이 서있다
나도 차라리 저 바위나 되며
험한 파도 성난 물결 온갖 고난
겪어나 꿀꿀이 씩씩하게 살아
가고저

2년 후 風鏡

까아만 머리 살포시 들어
수집은 미소 띄어 인사하올때
네 붉으스레한 뺨엔
홍조이도 그리운 정이 깃드려

허나
차마 부끄러움에 놓치고
떠난 다음에 OK
"선생님 선생님" 그 그리워 불렀지

< 소녀 D에게 >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1년 崔文道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아담한 우리집은 피땀 시냇가
뒷새소리 냇물소리 가득 들어며
가슴깍 希望싹이 돋아납니다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봄이면 뒷東山엔 꽃을 방그레
참새참새 나비들이 아양부리며
누나하고 들에서 꽃수레맵다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여름이면 무럭무럭 草綠 부풀고
노-란 보리철이 출렁이며는
종다리 나래쳐 노래합니다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가을이면 연지색은 단풍 수놓고
높디 높은 맑은하늘 우러러 보면
마음속엔 산듯한 무늬집니다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겨울이면 보들보들 함박눈 나려
울타리 아롱아롱 희꽃 핍니다
이몸은 農村에서 자라납니다

連載小說 希望을 찾어서 2년 金相馥

(제 2 회)

한편 영애는 어머니와 동생과 더부러 오랫날 그리던 옛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던것이며 닥쳐오는 정거장마다 벌물처럼 밀려드는 복귀인들로 말미아마 초만원이 된 열차속에서 시달리대로 시달렸으나 그다지 과히 고달픈 줄 몰랐으니 오직 그리운 옛집으로 찾어간다는 용기에서 오히려 어떠한 용기를 얻을수 있을뿐 아니라 끝이 없이 즐거웠다 물론 영애의 가족만이 아니였다 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였다 그러나 영애의 어머니만은 서울이 가까워올수록 가슴에 솟아오르는 비애를 억제 못하니 지난 피난당시에 경기고녀 열녀생이던 17세 되는 큰딸이 행방불명이 되자 이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것이였다

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였을때 모든 사람들은 자못 별안간 혼잡하였다 남녀노소 할것없이 짐보따리를 어깨에 미는 사람 머리에 이는 사람 손에 드는 사람 어린애를 업고 안고 붙들고는 제가끔 남먼저 나갈려고 쫓은 창문을 밀고 닫기면서 뚫고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애의 어머니는 품에 안겨 자는 어린애의 입에다가 젖꼭지를 물린채 흡사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서 열어놓을 몰랐다

「어머니 무얼 하세요 다들 나리는데 언제까지 [illegible] 이렇게만 있을때요 어머니도 참 또 언니생각하는가 봐」 갑작이 곁에 앉아 있던 영애는 어머니를 처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언니라는 말이 나올적에는 영애인들 목이 메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어머니는 꿈에서나 깨어난듯이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왜 이래 영애는 아무런 생각도 안했어 그래 참 빨리 나려가야지 영애는 영환이 손을 잡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마중나오셨는가 잘 살펴라 응」

어린애를 업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영애의 어머니는 적지 아니 당황하였다 그런대 영애의 아버지는 집 수리

와 여러가지 가사형편에 의하여 약 열주일전에 이사짐을 가지고 미리 왔던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애를 업은 다음 작은 보따리를 양손에 다 들었고 영애도 한개씩은 보따리를 들고는 금년에 국민학교 삼년생인 남동생을 따리고 남들이 모두 나간후에야 간신히 뿌랫도호-부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뿌랫도호-부에서는 짐을 이고 진채 멜고 단기며 싸우고 야단법석이었다

영애와 어머니는 여기로 나가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서 있을때이었다 바로 그때 영애의 손을 잡고 있던 영환이가

「누나 아버지! 저-기 봐」 이렇게 손으로 가르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기쁜 놀래는것이었다

그래서 영애와 어머니는 이구동성으로 「어디 어디」 하면서 영환이가 가르키는 쪽을 바라보았을때 정말 영애의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들사이를 헤치면서 벙글벙글 웃는 낯으로 이쪽으로 바라보며 걸어오고 있었다

영애의 아버지가 앞으로 닥아왔을때 누구보다 반겨 날뛰는것은 영환이었다

영환이는 다른사람이 인사도 할 사이없이 아버지의 손에 매달리면서

「아버지 왜 인제 나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원망하는듯 아버지를 치어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어전히 벙글벙글 웃으며 영애와 안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오느라고 수고 많았지 그런데 왜 이래 늦게야 나왔는가 나는 안오는줄 알고 도라갈려 했지」

이렇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영환이는 무슨 큰 자랑이라도 하는듯이 아버지의 손을 흔들면서

「아버지 나 이약할게 차 어머니가 또 ---- -- -」

이렇게 말을 하다 어머니를 치어다보았을때 어머니로 부터 무섭게 눈을 흘기는 판에 그만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 주물하고 말았다

「그래 어머니가 또 실없는 소를 하였다 맨이지」 이렇게 말하고난 아버지는 안해로 부터 보따리를 받아드렸다

영애의 집은 충무로 입구 한국은행 바로 옆에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드러갔을때는 오전이 조금 지나서였다

점은 물론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다지 허무러진 곳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보다도 깨끗한 것 같았다 그리고 넓서 양상점에는 적지 않은 상품이 놓여 있었고 상점 정문 위에는 전과 다름없이 「東一商会」라는 크다란 간판이 부쳐 있었고 간판 좌편 윗머리에다 자그만한 금테로 세도서 점화 원체라고 써 붙여 있었다 영애집 상점은 이층으로 된 사각형 백돌집이고 상점 뒤에는 개와로 이긴 아담한 살림집이 있다

영애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전과 같이 아층에는 점화점을 보기로 하고 상층에는 책점을 차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에 아버지와 같이 왔보던 먼 친척인 영애의 아저씨가 되는 박상구(朴相九)라는 사람도 며느새 와 있었다 이리하여 영애의 아버지와 상구는 상품 채우기에 골몰하였고 어머니는 가사정리에 분주하였으며 동생 영환이는 집에 다니던 남대분국민학교에 전입하였다

영애는 몇일동안 어머니의 일을 거들면서 입학시험 준비에 열중하여 남어지 부산히 서울 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항상 무거운 수심에 잠겨 있는 영애가 아니고 누구였으랴 그는 어느 날을 치고도 건수를 생각지 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로 바삐 건수의 이야기를 아버지에 하려라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배운 같이 상점일에 분주하신 아버지에게 좀체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여러날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영애는 밤 이숙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갑작이 건수의 생각이 간절하였다

「오늘도 아니 이순간에도 그 좁고 어두운 방안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밤을 세울거야 그렇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난 영애는 어느정도 안심이 되는듯 하였으나 저도 모르게 저윽히 탄식을 하였다 그리자 또다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내가 건수를 왜 이다지도 생각할까? 건수는 친척도 아무것도 아닌 남이 아닌가 그렇다 건수

는 분명히 남이다 그러나 아니다 아니다 절수는 살전하기보다 이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벗이다 그리고 얼굴도 연마나 귀엽게 생겼는가

그 어느날이 인가 학교에서 시간을 마치고 절수와 둘이서 집으로 향하여 거리을때 길가에서 놀던 4,5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한 아이가

「저것들은 언제나 귀엽게 나란히 다니거던」 하는데 또한 아이의 말이 「그것도 몰라 실랑 꺼시 ok」 하고는 다라나지 않는가

그때 종채 목이라곤 한줄 보이던 절수는 「무어 어째? 이 망할 자식들」 뒤를 쫓차 갈라하였다 그러나 잘나나는 황급히 절수를 붓들었다 아니 죽을 힘을 다하여 절수를 못가게 만류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눈을 떠 영애의 얼굴은 귀밑까지 빨에지자 제빨리 앞에 놓인 책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한참후에 얼굴에서 책을 떼었을때는 어떠한 뜻 깊은 웃음이 피여 오르는것이였다 다음 순간 혹시나 자신의 태도를 누가 알아 채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뒤로 도라보았을때 어머니는 여전히 잠은 잠이 잠겼으며 조금 전까지도 뒤에 누워서 책을 디집그리고 있던 영환이도 책을 옆에 놓은채 코를 골고 있었으며 어머니 앞에 누어 자는 어린 아기만은 가끔가다 꿈을 꾸는지 방긋이 웃음을 띄우곤 한다

영애는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이 어린 애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래서 아기의 입술에다 제 입을 맞추고 뜨겁게 맞추었다

그다음날은 일요일인데도 영애는 일찍이 눈을 떴다 그리고 지난 밤에 생각하던것을 되풀이하면서 오늘은 기어코 아버지에게 말씀한것을 결심하였다 일전에 어머니에게만 이야기하였드니 「그래 절수는 정말 불상한 아이다 그런 애는 공부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거ok 그렇게도 제주가 있으니 · · · ·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마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보렴」 이렇게 말하였던것이다

이날 아침은 다른 날보다 식사가 늦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상구를 제하고는 아버지를 비롯한 전가족

이 한자리에 모여 앉게되었다
영애는 이번 기회야 말로 놓지지 않고 이야기것을 마음먹으며 새삼스레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영애는 어젯지 밥이 먹고 싶은것이 아니라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몇술의 밥을 떠다말고 간신히 뒤로 물러앉았다
「너 왜 밥을 그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영애의 아버지는 근심하는듯 영애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아니에요 배가 곱프지 않아요」
영애는 방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허허 배가 안곱프다니」 영애의 아버지는 혼자 말같이 중얼거렸다 조금후에야 아버지도 밥상을 물리치고 뒤로 물러앉는다
영애는 재빨리 밥상을 드러 마루에다 놓고는 부엌에 가서 숭늉을 뜨다 아버지에게 드리고는 제자리에 가서 조심스러히 앉는다 그리고 영애는 이야기를 꺼내고 아버지를 치어다 보았으나 좀체 입이 열리지 않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기만하였다 그때 잠자코 밥만 먹고 있던 영애의 어머니는 눈치를 차렸는지
「참 영애야 이제 아버지에게 편수의 이야기를 해보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웃는 얼굴로 영애를 바라보았다
「편수?」 이렇게 반문하는 영애의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물다 말고 한때와 영애를 번갈아 보았다
영애는 「이제 때는 왔다」는 듯 용기를 내었다
「아버지 편수 모르세요」 영애는 똑바로 아버지를 치어다보며 말하였다 「아-니 편수라니」 아직도 아버지는 모르겠다는듯이 고개를 기웃 그렸다
「저 울산 왔을때 바로 우리 옆집 아주머니 아들 말이에요」
「오 그래 그래 얌전하고 잘 생긴 그 아이 말이지」
「맞어요 그 앤가봐요」
이번에는 영애의 어머니가 대답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버지도 참 어떻게 된것이 아니래요 편수를 좀 도아주라는 거예요」
「편수를 도아주라니?」
당신도 참 어지간히 남의 말을 못 알아 채리시는 그애가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시오만 지금 그애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있지 않소 또 너가 그애를 서울로 데려다 공부를 좀 시켜주라는 말이지요 재주도 아깝지만 하도 영전하고 정직해서 - - - -」

곁에선 가만히 듣고 있던 영애의 어머니는 남편의 하는 말이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는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할게지 뜸만 들여놓고 도와주라니 부엇이 어제 한 셈인지 알수 있어야지」

「호호 - - -」

「호호 아버지도 참」 온 집안은 웃음판이 버려졌는데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애까지가 덩따라 웃는 판에 더욱 웃음소리는 높아졌다 심지어 영애는 배를 꺼러안고 구불기까지 하였다

한참후에야 웃음도 그치고 영애의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를 재뜨리에 꺼버리면서 부엇을 생각하듯이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남의 아이를 어떻게 - - - - -」 이렇게 말을 하다가 밖을 내다보았다

영애는 눈앞이 아찔해지는것 같았다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을 가까스로 지나갔다

그 찰나 지금이 가장 중대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보세요」

「아니 네가 부엇 그래 대단게 될 뛰는거야」

「너무나 불상해서요」

「하하 우리 영애가 어느새 저렇게 착해졌는가 그런데 그애 아버지는 어디 갔댔지」

「일본으로 갔다나 봐요」 영애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일본에서 무얼하기에?」

「그것까지야 어떻게 남의 일을 알수 있소 그러나 이웃사람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산다고들 하는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야 어찌 믿을수 있어야지요」

「그 - 참 안되었는데 하여튼 불상한 아이다 그러면 위선 서울로 오라하여 학교도 다니며 우리상점도 좀 돌보도록 하면 어떻겠소?」

「그러실 - - - - - 좋은

설아 아니에요」

「영애ok 그럼 철수에게 오도록 편지내해 보려므나」

이렇게 아버지로 부터 허락이 났던것이다 그순간 영애는 너무나 기뻤다 눈에서는 눈물이 방도는것 같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하하 그러고 보니 영애가 제일 좋아만 하네」

「호호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계집애도 참」

영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전녀 방으로 다라 냈다

영애가 편지를 부치고 도라올때에는 부한한 행복감에 사로 잡혔다.

<다음 호에 계속>

웃음의 꽃다발

여기는 文芸部 Edit-room 입니다 여러 學友들께은 放送을 통하여 여러곳으로 도라다니며 즐거운 News 자미있는 Story도 부처 줄었겠지요 이곳 편집실에서도 여러가지 기쁘고 자미 있는 사실이 자못 버러졌읍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여러 學友들에게 아뢰겠사옵니다

× × ×

먼저 오랜 날만에 다녀오신 교장선생님을 뵈오던 기쁨

어느날이였던가 이곳 편집실에는 "지로롱," 하고 전화기의 신호 벨이 울렸읍니다 마침 그때 제빨리 수화기를 든 봉진군의 입은 벌어진 밤채처럼 버러졌다

「아니 이사람 부슨 얼이기에 혼자만 저렇게 좋아하는지ok 어디 나도 좀 들어봐ok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기쪽으로 막 뛰여 갔을때 마침 전화를 끊고 도라선 봉진군은 그저 「아 됐다 됐다」 하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자리를 빙빙 돌고만 있지 않는가요 아무런 영문도

보르고 곁에 서있던 나OK 말고 또 누가 좋겠습니까.

「이 사람 도라도 아주 도깨비나 봐 그래 맨을 좀 차라OK 불에 빠져도 정신을 차리OK 된다구」 이렇게 말하는 나도 성이 나지 않을수 없었읍니다

「아 그래 그래 자네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저 다름이 아니라 저 말이OK」

「이사람 저-가 무슨 저OK 저-는 나중 말하고 우선 요전부터 말하라는거OK

「하하-----별 사람 다 보겠네 무얼 그렇게 성급히 구는거OK」

「-----」 나는 정말 기가 막혀 말을 못했읍니다

「그런데 자네 놀라지나 말어 우리 학교 인가가 났다고 이제 말-----」

「무엇? 인가?」

「그래 말OK」

「누가 말하던가?」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보란 말OK 그래 이제 봐 교무주임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OK 그래 교장선생님도 저기에 계신다고」

「너 그 정말이냐」

「이 사람 언제는 거짓말 하든 놈이 어디 우리들은 하늘을 날듯이 교장선생님께로 곳으로 달려갔읍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오셨는지 여러 선생님이 둘러앉아 교장선생님의 OK기를 돋우라고 아주 정신을 흥분 올려 모양이었읍니다

「교장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읍니까」

「오 자네들 언제 왔는가 그래 나OK 두어 고생했겠나 마는 정말 제군들 그간 청소하고 복습하고 가르치느라고 고생도 많을뿐더러 나를 얼마나 원망하였겠나」

「아니 올시다 저희들은 오직 교장선생님의 건강만 살펴드리오니 조금도 고생하였지요 그런 것보다 얼마나 돌기에 교장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사하니 이위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읍니까」

「고맙네 고마워 그러나 다름 아니라 다른 제군들에게 좀 더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하네 잘 양해해주기 바

조다」

「교장선생님 별말씀 다 하십니다 하

저도 ……」

유리물을 허보에 순시줄이 또위워

화 더 날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군들의 손

으로 된 "춘교"를 받고 나는 미쁨

을 금치 못했다 내용의 잘되고

못되고는 고사하고 제군들 한사람

한사람의 성의가 눌함지 않거든

이렇게 한 계속해 간다면 얼마 안

가서 그 "춘교"도 훌륭히 빛날수

있으리라고 믿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 우러나옴을 느꼈읍니다

나, 얼마나 거룩하고 인자하신 분입

니까 그 존애하는 學友들이여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장선

생님을 더욱 받들어 "춘교"이란

아름다운 마음과 정을 지켜

끝까지 불변의 굳은 신념을 가질

것을 맹세합시다

× × ×

그래서 우리학교 유일의 Novelist

차니가 입례했읍니다 저 "희망을

찾아서"라는 연재소설을 쓴 분을

찾아 왔읍니다 마침 그분은 마

루에 앉아서 무슨 책인지 열심히

읽고 있었지요

「여보게 무슨 책을 그렇게 몰두해 읽는

가 손님이 찾어와도 모르니」

「오 자네를 아게 얼마만인가 어서

올라오게 자 이방으로」「자네 방

보다 마루가 시원찮서」

「허기는 그래 그럼 누추하지만 거기

를 앉게」

「그런데 자네 방을 일부러 찾은 목적

이 있지」 물었을때 「이거 ok 이

것」 하고 내민것은 틀수도 없는 원고

이였다

「傑作? 자네 이것을 이제 보는

거 ok」

「아니 전에 한번 본것이지만 재

삼삼해서 재독하는 셈이네」

「아 재독하군 그런데 만약 저번

春江에 실린 "희망을 찾아서" 라는

연재소설이 잘 되었다면 그런 훌륭

한 원고가 대관절 어데서 나왔는

거 ok」

「에이 이사람을 사람을 놀리도 유

만부덕이지 그게 무슨소리 ok」

「천만에 왜 우리가 자네를 놀린다

주 아니라 차라든 그런물건 동기나 될해 봐」

「허허 사람 셋이만 모여 앉으면 꼭 사람 병신 만들기 몰제가 아니라도 내 오늘은 내가 병신이라 되나보다 하하 - - -」

「핫하하 - - -」

「하하하 - - - - 그런데 이사람 보게 그렇게만 설명에 비교우지 말고 시원스럽 이야기나 해주게」

봉관군도 천천등산이나 웃다가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래 그래 봉진이 자네 말이 맞네 어 우리가 찾어온 보람 있이 그게 무에야 설명이」

「하하 그래 비교우긴 누가 비교우는거야 - - - 구러나 저러나 이미 병신이가 되었으니 아야기는 하겠네마는 저 - - - - - -」

「이사람이 또 무슨 말이 있다는거야 그래 병신이가 되고 안되고는 내중 말하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세」

「허허 자네들도 어지간하군 그래 허지는 물을 썬 동기가 보다도 이야기 줄기가 거짓이 아니고 현재 막 버려지고 있는 사실이라 오히려 바른 말려주네」

「그럼 그게 사실인가 보네」

「그리고 주인장으로 나오는 길수는 나와도 남남간이 아니거든 그럼다고 해서 나와 아주 하나같은 친척도 아니지만 사촌네 팔촌보다는 조금 가까운 형설이 되네 그의 어머니는 종조 어머님 되시고 말일세」

「물론이지」

「그런데 어느 날은 그의 어머니가 놀러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때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느새 그 이야기에 홈빡 정신이 팔려 있지」

「그래서」

「그러자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나는 이상한 충동을 받았다말이야」

「이상한 충동이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사실대로 글을 써 볼 생각이 간절하였단 말일세」

「그래서」

「그래서 책상으로 달려갔지 그런

나 박상 Pen을 들었을때 말이야
참 기사 만났노릇이지 그놈 Pen속이
사람의 말을 드러야지 그래 되는대로
써버린것이니 어디 글이 될수 있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와서 취소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말
일세」

「자네 변소리 다 하고 있군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글이 나올
바에야 무슨 국정이 있겠나」

「허기는 그래 그러나 너무나 비속해
서 - - - 여하간 여러 학우들만
양해해 준다면 - - 」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박의 마음도 이젊 되면
여러 학우들도 충분한 이해 밑은 양해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 × ×

어느날인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
는 이곳 편집실에 봉진군과 둘이
마주 앉게되었읍니다

「봉진군」

「왜 그래」

「저 "黃江" 에 말이야 "붉은의 하로"
라는 글을 쓴 벗을 말하는거야」

「그래 어서 말해봐」

좀체 입을 떼지 않는 그 성격으로 어
떠서 그런 좋은 글이 나왔는가 말일
세」

「좋긴 무엇이 좋아 그저 그렇지」

「자네는 그만한 글이나 쓰겠나말이야」

「내가 쓰면 그따위글을 쓸줄 아나」

「이 사람 자네 아니 남을 부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그 따위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ok 자네는 자신을
이해치 못하는 그 - - - 아니 사랑
이전는 그 꽃향기 가득한 뒷동산에
서 풀벌레 소리같은 심장의 고동을 억
제하며 청춘의 고귀한 이상적 꿈을
꾸다가 그만 그기바람에 - - 」

「그래 그기 바람에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그기 바람에 글이 아주 묘하게 되
었단 말이ok」

「하하 - - - 자네 전번에 나를 들
었다드니 오늘은 자네가 막 풀고
싶군만 그래」

「아니ok 도는것이 아니라 좀 오랜
만에 하하 - - 」

「하하 - - - 오랜 만 하하 - - 」

「그런데 봉진군 」

「 ? 」

「저 청청화를 읊은 벗 말이OK 그는 정말 특수한 소질을 가졌거든」

「그래 그래 내가 방금 말할려고 했지만 정말 천도유망해」

「그런데 문예부의 인기 스타—라지」

「아바 그런가 봐」

여러 학우들도 잘 아다싶이 창간호의 인기를 독점한 복덕군의 "청청화" "사경화"는 얼마나 상듯하고 아름답게 피였던가요

언제나 말숙하고 온순한 그의 모습은 어디로 보나 문학적 Type이지요

「봉진순」

「왜」

「그 복덕군 말OK 글도 아름답거니와 항상 여자처럼 생글생글 웃는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예쁘지 않던가」

「그럼 아름답고 예쁘면 어떻게 할테OK」

「아니 이사람 어떻게 할께 아니라 저 Sex 변화가 유행된다는 오지음 세상에 말이OK 혹시나 Female로 변하지나 않을까 의심되거든 아니 바라기도 해」

「그래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드렀어 하핫하 ---」

「하하하 ----」

「똑똑 똑똑」 녹크소리

「?」

「?」

「똑똑 똑똑」

「누구세요」

「자네들 무슨 일로 그렇게 멋쩌런지게 웃었는거OK」

「어크 범도 제말하면 온다드니 이게 누구OK 자자네 복덕이지 그간 자네를 두고 변별 일이 다 있었지」

「오 자네가 복덕인가 여러 좋은 얏 얏게 왜 그렇게 자 잘 안보이는거OK」

「하하--- 자네들 또 부는 바람이OK 그래 사람을 막 봄 사고 변별 일 있었다니 보이니 안보이니 OK만이OK」

「?」

「?」

「자네들 말이나 좀 해보게 왜 그렇게 눈만 또렷또렷 하고 있는거OK 그러고 보니 전에 날 흉보고 웃었구나 그래」

「아닐세 아닐세 우리가 자네 흉을 보다니」

「그런데 복덕군 저 상진이가 말OK 자네 흉은 아니래도 저 저 - - - -」

「그래 그래 나를 무어라 하든」

「저 - 자네 얼굴이 아주 예쁘다고 말이OK 혹시 Female로 변하였으면 하고 무척 바래드란 말일세」

「무엇 나를 ?」

「아니OK 그런 빨간 거짓말이OK 봉진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거OK 그래」

「핫하 자네 딱 잡아 떼는구만」

「이거 어떻게 되는 셈판이OK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 알수 없으니」

「내가 가짜 아닌 진짜고 봉진이가 진짜 아닌 가짜란 말이OK」

「아니OK 상진이가 진짜 아닌 가짜고 내가 가짜 아닌 진짜일세」

「하하‥ 자네들 둘다 진짜고 둘다 가짜면 어떻게 되는거OK」

「…?」

「…?」

「아 참 막 하루는 판에 얻어오말이었구만」

「얻어 오 말아 아니라 얻어갈 말이OK 란 말」

「핫하하 - - - -」

「하하 ~ ~ ~ ~」

「하하하 - - -」 - - - - -

「그런데 상진군 자네는 왜 웃었나?」

「자네가 란 말이라는 바람에 웃었지 그런데 자네는 ?」

「나는 복덕군이 웃는 바람에 웃었지」

「그럼 복덕군은 ?」

「나는 자네들이 막 웃어대기는 웃는 곳인줄 알고 웃었지」

「그러고 보니 여기는 웃음의 집합소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웃음의 Group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웃음의 꽃다발을 학우들에게 보내자

「그렇다 우리 이제부터 학우들에게 보내기로 하세 하나 … 둘 … 셋」

「핫하하 - - - - - - -」

「하하 - - - - - - -」

「하하하 - - - - -」

× × ×

이것으로 막을 닫겠읍니다

친애하는 학우들이여! 이제는 우리들이 고대하던 소원도 이루어 졌읍니다 새 학기는 웃음으로 마지하여 웃어면서 공부합시다

편집실 K. S. B.

그리운 바다

1년 柳慶林

나는 어렸적부터 오늘날까지 단 하로도 바다를 잊어본적이 없다고 하기보다 바다처럼 熱狂的으로 사랑해본적은 어느다른 곳에선 도저히 찾어볼수 없을것이다 蒼茫한 大海와 宇宙를 다흔드는 波濤한 파도소리를 상상만 해도 가슴에선 아지못할 느무엇이 약동하기 시작하는것이다

나는 이번 여름放學을 마지하였을때 바로 海雲台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이는 두말할것 없이 거기엔 바다 있고 버물수 있는 외가가 있었기때문이다

그곳에서 밤학을 낮이면 海水浴, 밤이면 白沙場을 거니는것이 아주 나에게 유일한 日課인것 처럼 어느사이에 날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냈지곳 좋겠건만 무더위도 차차 꼬리를 감추기 시작하고 내일이면 내 집으로 도라가야 될 내 자신을 생각해보았을때 무언지 모이 쓸쓸하였다

그렇다 오랜날 그리던 바다였지만 이 한밤이 지나가면 속절

없이 떠나갈 내가 아닌가

오- 그리운 바다여!

오늘밤은 저 - 달과 더부러 바지락 이별의 노래를 불러 보련다

絲陰속에서 요란하던 매미소리도 사라진 이른 가을 바람이 사르르 옷것을 여민다

하늘에 솟은 달은 점점 교교한 은빛을 흠어내며 상념만상을 고이 잠드린다.

이때당 아름다운 귀뚜라미소리를 들려주마 Bed에 홀로 앉자 물거운 지난날을 그리며 날지못하는 현실을 통탄하는 심정은 도한 모를 곳에서 알지못할 원망으로 사라져간다.

아- 달은 유난히도 밝아 오천만 외로울이 정신을 잠도하고 적막이 사방으로 잦아드는 果然의 밤이여! 그 어느뉘도 저 달을 쳐다보며 애수에 잠겨 가리라. 그러나 정든 고향을 떠나간 나 그네가 밝은 달을 쳐다보고 부모 처자를 그리며 눈물짓는 그 심사야 오죽 하리오

望鄕

1년 金慶生

달빛 차거웁고
기러기 날며 이슬 굴리는 밤

○ ○

울면서 은빛속으로
가버린 하늘가에 사라진다

○ ○

그리웁게 너가 내품이 되어
파란 하늘가에 사라질적 바다
지극히 내 한숨은 너에 사붙혔노라

○ ○

달빛 차거웁고
기러기 날며 이슬을 굴리는 밤
나는 너를 애쓰 불렀노라

아-파도 소리 · · ·
달빛 소롯이 어린 바다에는 살살
불어오는 미풍에 한결 두렷 말려오
는 파도엔 하-얀 은빛이 뛰놀며
고요히 잠든 아기의 숨소리와 한데
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달은 버들지를 안는다 재ㅣ
맙 서쪽 하늘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한거름 두거름 한데이 白沙場을 거닐
때면 이따금 발밑에선 샛하-얀
조개의 속사간이 들려오고 그 어두
두수를 기다리는 아쉬움에 잠긴다
오- 그리워 헤매이는 아득한 바다여!
너를 왔고도라서는 날엔 나는 저 끝없는
사막에서 길 잃은 나그네 되리라
아름다운 노래와 즐거운 이야기도
저 바리고 너를 그려왔건만 또다시
헤어질 애석한 운명을 어느 뉘게 호
소하랴
보면 볼수록 그리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숨래이는 신비스러
고 위대한 바다
자유와 명화와 행복이 부둥켜이
즐겨이는 그 품속에 나는 너의
찬가를 보내리라

蔚高 모람을 깨자!

1년 張相烈

왔다! 팽이를 들때가
学友 蔚高의 学徒여!
힘차게 때쳐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람이다 힘차게 쳐보자
보라! 천방울의 파란이 悲心을
진탄 新生蔚高의 動脈은 힘차
게 躍動하리라

씩씩하게 이러선 蔚高学徒여!
더도나도 팽이를 눈에 쳐들어
우리들 蔚高의 모람을 깨자

文芸部 紹介

編輯班	金相震	辛鳳鎭
	金楠德	張相烈
宣伝班	辛四煥	柳慶赫
	吉竜九	李相翼
材料收集班	金慶生	金琮斗
	洪淳玉	崔基永
謄寫班	李根守	崔文道
	金政植	

편집후기

지나간 여름放学에는 더움을 무
하여 바다로 바다로 自然을 찾
저 다니며 봄과 바움을 맞아 가
르고 또한 새학기에 바지한 理
想的 꿈도 부쳐 꾸었음을 본 바
이다 언제나 그렇게만 흥흥 할것
같은 더위도 이미 지나간 꿈처럼
사라져 간 오늘날 이때를 제법
산산한 바람이 선들선들 갈가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보기좋게 나붓
거리기도 한다 오곡이 부르익
어 출렁이만 하는 저 넓은 들 높게
푸른 저 하늘 정말 볼수록 신기하
며 가슴속에선 희망이 활개쳐 이
르나는가 보다
학우들이여! 이러한 좋은 시
기에 새희망 새결심을 새로하
는 동시에 새복까지 많이많이
받으소서

× ×

本誌의 2호도 미처 구미기전에
어느듯 한가위를 바지하였으며
노동만 적지 아니 바쁘게 서둘
렀으나 이제ok 늦게 나오나서
여러 학우 앞에 미안 천을 면저

사과하는 바이다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

× ×

무엇보다도 전번 창간호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안계셨든 관계로 교장선생님의 옥고를 볼수가 없었으니 그얼마나 섭섭하였으랴 그러나 이번호에는 고대하든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귀고를 싣고보니 이제는 정말 "蒼江"도 파란불길이 구비쳐드는것 같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을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주신 풍낫생님의 주옥같은 귀고를 얻었으니 이도한 우리들의 영광이 아닐수 없다

보란 "행복한 생활이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얼마나 바라고 부르짖던 것인가 ?

아무조록 재독 삼독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

전번 창간호를 계획할때도 여러가지 구상이 있었는데 편집을 맡치고보니 너무나 결함이 많았으나 이번 호도 좀더 다채롭게 꾸며 보려는 것으로 마련하려고 했으나 정작 하고보니 역시 빼진점이 많다 그러나 세번째 나올 다음호는 정말 훌륭히 백년지계를 굳게 약속한다

× ×

글써준 여러 학우에게 감사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럼에도 좋은 원고를 많이 받고도 편집사정과 지면관계로 부득이 다음호로 미루게 된 학우에게는 재삼 사과를 드려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도 오직 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후고 편달 있기를 빈다

× ×

끝으로 여러 학우들로 하여금 본지의 장점과 단점 또한 개선할것과 희망하는것이 있거든 언제든지 이곳 편집부로 찾아와서 문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편집자 김상진
신봉진

檀紀4287年10月1日發刊

蔚山高等學校

文藝部